

## 포스텍 한세광 교수, 제24회 송곡과학기술상 수상

등록 2022.02.08 17:11:50 | 수정 2022.02.08 17:23:43



사진은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포스텍은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수여하는 제24회 송곡과학기술상 신소재개발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한 교수는 수상과 함께 상금 2000만원을 받는다.

송곡과학기술상은 송곡(松谷) 최형섭 박사(KIST 초대 소장, 과학기술처 장관 역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9년 제정됐다.

세계 정상 수준의 신소재를 개발했거나 국가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연구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국가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자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신소재개발 분야'와 '과학기술정책 분야'로 구분해 시상한다.

한 교수는 생체 재료를 이용한 스마트 나노의약 4건의 상업화를 이뤄냈으며, 생체고분자 하이드로 젤을 이용해 난치성 질환 유전자 변형 줄기세포 치료제도 개발해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당뇨 진단과 합병증 치료 약물전달시스템이 장착된 스마트 콘택트렌즈도 개발해 차세대 스마트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학문적, 산업적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는 스마트 웨어러블 의료기기에 관한 혁신적 융합연구를 바탕으로 차세대 스마트 의료기기와 바이오의료 분야 학술적, 산업적 발전에 기여해 이번에 송곡과학기술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한세광 교수는 "개발한 스마트 콘택트렌즈는 당뇨 환자를 위해 혈당을 측정하고 투약까지 할 수 있다"며 "신소재와 스마트 웨어러블 의료기기에 대한 융합연구를 통해 여러 질환의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기술 개발을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